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0호 [루게 제24828호] 주제104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2월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내각부총리, 당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해당 부서 과장, 도당책임비서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의 책임인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의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의정이 결정되었다.

1.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확대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룡해 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동안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더욱 굳건히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지난 3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온 나날이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의 거대한 견인력과



우리 당이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유일적명도를 거세하러 들던 21세기 현대관종과를 단호히 적발속청하고 그 여독을 말끔히 뿌리뽑음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정간화하고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진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을 결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수호한 최대의 업적이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연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훌륭한 화폭을 펼쳐놓았다.

만사함을 차별없이 믿어 주고 풀어주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후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의 마음이 더욱 순결하고 진실한것으로 피게 하였다.

지난 3년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한생이 집약되어있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였다.

우리 당은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도

생명력을 만천하에 파시한 승리와 변혁의 나날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가시는 김일성민족, 김정은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나날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만수대인덕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대원수칭호,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을 수여해드리고 김정은훈장, 김정은상, 김정은청년영예상, 김정은소년영예상을 제정하여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직함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지니셔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이 김일성,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은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은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제시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은헌법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은 동지의 국가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였다.

지난 3년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경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일심단결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의 붉은 기폭에 오직 승리만을 아로새기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직선적으로, 공세적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당을 당중앙과 사상도, 술검도, 발걸음도 같이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강화하였다.

업적을 최후승리를 위한 력사적전군과 더불어 세세년년 길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눈물속에 맞이한 2012년 1월 1일 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방곡사단을 찾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이 땅위에 강성부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거어이 건설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표시였다.

우리 당은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군대를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들고나가는 역적의 지지점으로, 김일성-김정은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하고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하였으며 모든 대대, 중대를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교향마을, 교향집으로 전면시키는데서 전환을 이룩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이신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1 면에서 계속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적위군을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후방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진민항전준비를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다.

당의 령도밑에 국방공업부문에서는 1950년대 근거리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원바람을 일으켜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지난 3년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부러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알찬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하여 군민협동작전으로 총돌격전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켜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우리 조국방위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달아오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세계의 상상봉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강성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종합적국력을 보여주는 대경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간직하고 《마식령속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사찰림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사찰림, 위성과학자주력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10월8일공장과 평양시버섯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시대의 전형, 본보기단위들을 일떠세웠다.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돌파구가 열리고 황금해의 새 령도가 펼쳐진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이 열렸다.

은 나라에 타면지는 체육열풍속에 선군조선의 관철과 기상을 떨치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교육부문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큰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지난 3년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성과 불패성이 만천하에 파시되고 백두산대국의 장창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고 모든 일이 잘되어나간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새겨안은 억척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부족점들



도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이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을 다 밝혀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우리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현지지도 단위들,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 내달리던 강성국가건설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기본열쇠가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 특히 책임일군들의 사상에 있으며 일군들이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지 않는다면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없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지 않고 증도반단하고있는 결합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에서는 이미전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완전무결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으 로 남기신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가운데서 제일 뒤떨어져 있는 수산부문을 추켜세울 결심을 하고 인민군대를 선도자로 내세우는 한편 내각과 수산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지난 시기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농고 심감히 검토총화하며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조건타발을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드 세계 내밀지 않는다면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제대로 발휘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유훈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천지운할유공장과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천리마타일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안북도간선지건설협기업소와 같이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표준공장, 본보기공장들과 실적을 내고있는 단위들을 높고보면서 단위 책임일군들부터 만능의 백과전서인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대중을 불러일으켜 애고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이 지난 3년간의 사업정형을 심감히 틀어쥐고보아야 하며 사상관철과 사업기풍, 일본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며 당중앙의 사상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생애,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박봉주동지, 리재일동지, 현명철동지, 김춘섭동지, 리만건동지, 전용남동지가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지난 3년간의 사업과정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 교훈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업도 방대하고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는 고난과 시련도 엄혹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로만 하면 아버지장군님의 유훈관철도 경제강국건설도 문제없다는 확고한 관념과 립장을 가지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아버지장군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서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결정서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유훈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우리 혁명의 교과서이며 과학적이고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건설과 건설, 정권건설과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변혁을 창조하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지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어떻게 충정으로 받들고 현실로 꽃피워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계신다.

3 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제 1 비 서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의 어머니를 잃고 피눈물로 얼어붙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어주시고 산악같이 일떠세우시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가장 숭엄하게 꾸려주시였으며 만수대언덕과 도소재지, 중요단위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온 나라 강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이 환하게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에 도전하여나선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적발분쇄하시고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으로 일심단결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앞장에서 받드는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내세우시고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우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장그리 불태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의리와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현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데서 우리는 반종파 투쟁에 이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당의 중요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자그마한 싹도 뿌리 채 뽑아버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천차지대본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



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부강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적내용을 결정하였다.

결정서는 첫째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사적관과 현지지도사적비,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틀어쥐고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이 잘되어나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할것이다.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함신하고 박력있게 풍세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결정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에로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하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도록 할데 대해 밝혔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교시와 지시들을 빠짐없이 찾아 정립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할것이다.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가운데서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집행중에 있는것, 형식적으로 집행하였거나 일관하게 집행할 문제들을 갈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년차별목표와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유훈관철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도록 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뜨겁게 깃들여있는 중요단위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더 잘 꾸리도록 할것이다.

4 면 으 로 계속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3 면 에서 계속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더욱 다그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당 조직들에서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앞장에 서도록 적극 밀어주며 책임일군들이 령도업적단위들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할 것이다.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문을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에 중심을 두고 자기 단위, 자기 부문에 주신 유훈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결정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날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할 데 대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오분열도식, 형식주의, 폐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여 철저히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결정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 데 대해 강조하였다.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것에 해당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자기 단위, 자기 부문에 주신 유훈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대담하고 용이하게 일관을 벌려나간다고 할 것이다.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에서 앞장서고있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의 백옥같은 충정과 인민군인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가장 충직하게, 진실하게, 사소한 편차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사상관철과 립장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결정서는 둘째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 부패행위 등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혁명의 원수, 우리 당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도록 할 것이다.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인민편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 것을 마땅한 혁명령리로, 혁명적당풍으로 간직하도록 할 것이다.

일군들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생활에서 결린 문제, 인민

들이 가슴아파하는 문제들을 푸는데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도록 할 것이다. 결정서는 셋째로,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들을 끝까지 집행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넷째로, 내각을 비롯한 해당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해 강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열린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합과 교훈들을 총화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3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대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굳건히 이어왔으며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인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불패의 전위대로 공고발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무적필승의 혁명군대로 강화되어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투쟁을 의하여 난관과 시련이 접쌍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강성국가건설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인민의 리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장군님의 교시는 혁명의 교과서이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한 번 불거지는 법이 없을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앞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지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이 력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현하는 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들어취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결기, 총동원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이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당사업은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로 지향되고 복종되어야 하며 당사업을 성과도 여기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혁명적배짱을 지니고 분발하여 펼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고 활력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답알에도 사상을 세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반적으로 배집없이 정립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침투시켜 그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환히 깨닫고 배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양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낡은 틀과 형식주의에 매인 정치사업이 아니라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진투적이며 진취적인 산정사업들을 요구하고있다.

지난해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어로공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화신식정치사업은 모든 당조직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지금은 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나 하고 문건놀음이나 할 때가 아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성원처럼 대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직하면서 현장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시대의 승걸이 늙어서는 참신하고 박력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고 일터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대중의 힘을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에 치밀한 조직사업이 동반될 때 남김없이 발휘될 수 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정령을 건별로 따져보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 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에서 일군들이 사무실적사업방범과 소방대식일본새를 극복하고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며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바로잡아나가도록 강하게 요구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내미는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과업들이 제기되고 부족한것이 많은 오늘의 실정에서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여기저기 력량을 분산하여 일을 벌려놓기만 하면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전반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내미는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과업들이 제기되고 부족한것이 많은 오늘의 실정에서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여기저기 력량을 분산하여 일을 벌려놓기만 하면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전반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몸 다 바쳐 결사관철하는것은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리이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준 중요한 직무에서 장군님의 뜻대로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일해왔는가 하는것을 망심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며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고 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

가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마음의 기풍을 억척같이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착안하고 전개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책임성이 부족하고 주인공심을 바로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사업실적으로 증명하는 진짜책임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오늘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면서 모든 사업을 새롭게 착상하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굳어진 도식과 낡고 뒤떨어진 일본새를 털어버리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자면 그들을 무한히 각성시키며 일군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편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을 하대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려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편이고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을 쓰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에서 이미 제시한대로 생산과 축산, 수산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넣어 하루빨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신념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생산을 늘리며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집짐승기르기를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어내어 마련해주신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료의 국산화비율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이 우리가 만든 소비품을 즐겨 쓰도록 하여야 한다.

도, 시, 군을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대로 산을 깬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농업지대나 공업지구나 할것없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기 지역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레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베풀어오신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계속 살려 인민들이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깨우쳐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몸 다 바쳐 결사관철하는것은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리이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준 중요한 직무에서 장군님의 뜻대로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일해왔는가 하는것을 망심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며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고 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

가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마음의 기풍을 억척같이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착안하고 전개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책임성이 부족하고 주인공심을 바로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사업실적으로 증명하는 진짜책임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오늘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면서 모든 사업을 새롭게 착상하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굳어진 도식과 낡고 뒤떨어진 일본새를 털어버리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자면 그들을 무한히 각성시키며 일군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편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을 하대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려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편이고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을 쓰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에서 이미 제시한대로 생산과 축산, 수산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넣어 하루빨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신념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생산을 늘리며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집짐승기르기를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도, 시, 군을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대로 산을 깬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농업지대나 공업지구나 할것없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기 지역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레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베풀어오신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계속 살려 인민들이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깨우쳐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몸 다 바쳐 결사관철하는것은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리이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준 중요한 직무에서 장군님의 뜻대로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일해왔는가 하는것을 망심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며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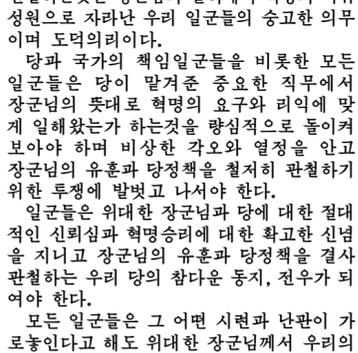
최 재 복 동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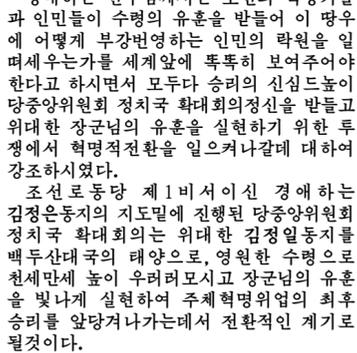
최 룡 해 동 지



박 봉 주 동 지



리 재 일 동 지



현 영 철 동 지



김 춘 섭 동 지



리 만 건 동 지



전 용 남 동 지

본사정치정보도반

커가는 기쁨속에, 행복속에 맞이하는 뜻깊은 설명절

대대손손 활짝 꽃피는 우리의 민속전통

설명절이다. 조국해방 일흔과 당장건 일흔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우리의 천만국민은 환희와 격정속에 설명절을 즐겁게 맞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첫 세배를 드리려고 영성축원의 꽃바구니, 꽃송이들을 정히 않은 각종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인들인 설명절 이른아침부터 만수대인덕을 비롯하여 온 나라 곳곳에 모신 대원수님들의 동상들과 태상상들을 찾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기쁨과 영광으로 천만국민은 환희롭고 이채로운 설명절풍경을 펼쳐놓고있다.

남다른 커가는 기쁨속에, 행복속에 전통적인 설명절을 쇠고 있는 우리 인민은 민족의 유구한 민속전통을 찬란히 꽃피우고 빛내여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설명절은 우리 민족의 손꼽히는 민속명절중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설명절을 즐겁고 의미있게 쇠는것을 전통화하여왔다.

하지만 력사가 오래고 전통이 우수하다고 하여 민족성, 민속전통이 절로 유지되고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우수하고 훌륭한 민속전통도 위인의 손길아래에서만 활짝 꽃피게 된다. 이것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해 가슴에 새긴 철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도 대원들이 설명절을 비롯한 민속명절들을 뜻깊게 쇠도록 해주셨으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시는 다음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명절들을 더 잘 쇠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민족적전통과 풍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백년에 일군들에게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설명절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도록,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쇠어온 설명절을 크게 쇠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또 어느때에는 설명절을 잘 쇠는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계승하여 오늘의 사회주의

문화생활에 잘 구현하는것이라고 일깨워주시면서 설명절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전통과 고유한 풍습대로 명절분위기를 세우고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시시켰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찬란히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면서 해마다 설명절을 의미있게 쇠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설명절을 하루 앞둔 새해전 1월 찬바람이 맴돌아치는 추운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북방의 한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었다고, 레일은 설명절인데 로동자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주는가, 종업원들은 몇명인가를 물어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안겨주시였으며 설명절을 즈음하여 친히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가서 원아들이 설명절을 어떻게 쇠는지를 보시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어린이들께 드리는 때까지 원아들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지난해 1월 국가과학원을 찾아가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설명절이 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보다 큰 과학기술성파로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하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 일흔과 당장건 일흔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의 설명절을 애도 인민들이 설명절을 더욱 즐겁고 의미있게 잘 쇠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여러가지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뜻깊은 올해에도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온 나라이르는 곳마다에서 팽이치기, 연피우기 등 각종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세배의 기쁨

설명절 아침이면 옷사람들을 찾아와 건강을 축복하며 세배를 드리는것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적습속의 하나이다.

공화국영웅이며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정진사 신암구역 천마동 강승정로인의 집에다 해마다 설명절 아침이면 19명이나 되는 아들, 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색동저고리를 꼭게 차려입은 손자, 손녀들이 줄지어 찾아온다.

설명절을 축하하여 자식들이 세배를 드릴 때면 강승정, 김항숙내외는 말하곤 한다. 건강하여 맑은 일들을 잘 하라고.

설명절 아침 제일 바쁜것은 가정의 주부들이다. 떡국, 설기차, 복두지짐, 약과...

가정주부들은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차리기 위해 여러 날전부터 품을 들여 음식감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동림군 읍 168인민반 김성덕로인의 집에다 설명절이던 며느리 김복순동무의 민족음식으로써 푸짐한 음식상이 차

민족의 향취 넘치는 명절

설명절 아침이면 옷사람들을 찾아와 건강을 축복하며 세배를 드리는것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적습속의 하나이다.

공화국영웅이며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정진사 신암구역 천마동 강승정로인의 집에다 해마다 설명절 아침이면 19명이나 되는 아들, 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색동저고리를 꼭게 차려입은 손자, 손녀들이 줄지어 찾아온다.

설명절을 축하하여 자식들이 세배를 드릴 때면 강승정, 김항숙내외는 말하곤 한다. 건강하여 맑은 일들을 잘 하라고.

설명절 아침 제일 바쁜것은 가정의 주부들이다. 떡국, 설기차, 복두지짐, 약과...

가정주부들은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차리기 위해 여러 날전부터 품을 들여 음식감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동림군 읍 168인민반 김성덕로인의 집에다 설명절이던 며느리 김복순동무의 민족음식으로써 푸짐한 음식상이 차

흥겨운 설 풍경

아이들에게 있어서 설명절은 제일 기쁜 명절중의 하나이다. 부모들의 지성이 깃든 설맞이 준비를 보며 흥겨운 설명절 풍경을 구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뵈려는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음식습속

하여 몸바쳐가는 김병호, 김복순부부의 애국의 일과도 그렇게 설명절 아침부터 시작되는것이다.

어제 그들뿐이라. 어느 가정에 가보아도 우리 당이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향취속에 애국의 빛을 가다듬는것이 내 나라의 아름다운 현실이구나.

본사기자 김지곤

얼마전 우리 설명절준비로 흥성이는 사리원시 꽃산기구의 민속거리가 열렸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거리에 명절맞이 준비의 근로자들이 뿔뿔히 땀을 흘리며 물건을 팔고 있다.

민속거리 종합시장 민속음식점들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향취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흥겨울지 모르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참으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민속거리에 넘쳐나는 기쁨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진정한 인민의 사회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한심안식구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설명절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다.

부엌에서 음식준비를 서두르던 덕진시 남덕동 계화실로인은 어름이 깃는 창밖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겨울이 안현의 일순도 도와 풍나물을 다듬던 전경봉 김병일로인이 재나물의 집작으로 말했다.

《손자애들은 배일 아침에야 올거요.》

남편의 말에 계화실로인은 자기의 수마음을 털었다.

《저금 내가 생각하는건 우리 당비서였다. 가보아야 할 곳이 오죽 많았소.》

그들의 화제에 오른 우리 당비서란 장안고지생산사업소의 최철수동무였다.

6년전부터 이곳 사업소의 초급당비서로 일하고있는 그는 전경봉 김병일로인의 가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설명절이 다가오면 민속거리가 활기차게 일어난다. 민속음식점, 민속공연장, 민속전시관 등 민속거리 곳곳에서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도시와 농촌의 구장, 문화관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집집마다 아름다운 조선적마져고리도 풍겨 계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지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광명성절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부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와 김정숙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장, 판계부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주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국방력을 불태우며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퍼들 가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메아리칠 위인칭송의 목소리

식민지주구의 경망스러운 입질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김일동지께서 인류사주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슴깊게 돌이켜보고있다. 얼마전 베닌의 꼬보누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친선단체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동지 탄생 73돐경축 베닌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베닌 《김일동지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는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는 신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의 배신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악랄한 비난과 함께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이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논증하시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김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선자적인 힘을 기울이시어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인삼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보루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또한 베닌 김일성-김일동지연구소조 책

임자가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단호히 짓부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동지께서는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무상치로제, 무료교육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념비적작업들이 수많은 업적으로써 명실공히 인민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리상사회가 펼쳐져 있었다. 사회주의위업중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겠다.》

카키스트란, 도이쉴란드, 로피아, 에티오피아, 에루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광범성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2월 16일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김일 위원회들은 위대한 김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관한 도문자와 경축품, 친선모임, 영웅장상화,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광명성절은 세계 진보적인류에 있어서 의의깊은 날로 되었고

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동지에 대한 호모의 정이 날로 더욱 강렬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외지와 무비의 담력, 뛰어난 전략전술로 김일성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파시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와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동지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독단과 전쟁, 인살책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 대하여 격조높이 말하였다.

아프리카의 한 단체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인적공로를 칭송하는 글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홈페이지는《위대한 민족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의 강국으로, 조선인민은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고 핵사슬과 핵전쟁의 위협을 떨치고 있다.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 맥 맥히 흐르고있는 민족자존의 념은 김일동지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치며 섬기 주신것이다. 김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극단한 반사회주의공세, 대조선압

살공세에 맞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막고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쟁에 놀리려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좌왕우왕할 때 그 《유일초대국》과 당당히 맞서신분은 김일동지였으시었다. 지난 시기 페르사만전쟁과 발칸전쟁을 통해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조선민족의 머리우에도 전쟁의 불을 들켜우려고 조선반도 핵위기를 조성하였다. 조선전쟁각본들을 작성하고 어떻게 하나 실현에 옮기려고 시도하였으나 매년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회색의 선군정권이 김일동지에게서 계시고 그의 손길아래 마련된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때문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은 핵억제력까지 갖추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역사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나온 거대한 사면이었다. 다시 말하여 수십년만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김일동지였으시어 이야말로

위대한 민족주의자이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는 《애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동지에게 국제사회는 매혹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는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반향을 소개하였다. 그렇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위대한 김일동지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다 바치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역사적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김일동지께서 계시었기에 인류사주위에는 자기 계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일동지를 《인류의 영원한 태양》, 《삼의 영원한 태양》이라 부르며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위대한 김일동지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여 부른 호칭을 다 꼽아볼수 없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세계를 끝없이 진감하며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메아리칠것이다.

지구속의 승풍은 배여져나오기마련이다. 최근 걸로나마 《대화》를 펴고한 박근혜가 끝내 대결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갑자기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단회의라는것을 연 피피집권자는 불순하기 그지없는 《통일대박》론을 또다시 들고나왔는가 하면 그 무슨 《전제조건만 타협》한다니, 《호응하지 않는다.》느니 하며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우려고 획책하였다. 나중에는 《보노는 핵이 아닌 두통한 지강》에서 나온다는 수권노식의 논리를 퍼면서 《연화의 물결》이니, 《개혁, 개방》이니 하고 우리가 택한 로선과 정책, 존엄은 체제까지 마구 헐었다.

박근혜의 승풍에 우리에게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과 체제대결경망상이 딱 들어차있는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성대히 경축하는 민족최대의 명절앞에 예고도 없이 출개들을 모아 놓고 우리를 악랄하게 경고대대해 절대로 목포할수 없다. 피피집권자의 경솔한 추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온 거리의 념원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정치지도발이다.

우리는 조국대일 일출훈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동족끼리 손을 잡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으로는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남조선당국에 정책전환을 할수 있는 기회와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다. 하지만 피피패당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그 실체적인 장으로 되는 반공화국도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태와 작당하여 대결소동에 더욱 발광으로 매달렸다. 바로 그 인하여 대화분위기가 파괴되고 북남관계가 견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있다는것은 두말할만 잔소리이다.

북남관계가 중단한것에 선 지금은 남조선집권자가 교훈을 찾고 그 어느때보다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제 집안에서 고집불통으로 소문나고 그것으로 욕을 보는 박근혜는 우리와의 관계문제에서도 집요하게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피당국자가 듣기에도 지겨운 《통일대박》

나발을 또다시 불어대며 《제도통일》총제를 거러걸 없이 드러내고 《전제조건》이니, 《개혁, 개방》이니 하며 우리의 정당한 대화대상과 신성한 체제까지 걸어놓는 달리는 필수 없는 그의 반공화국적대감과 대결기도를 뚜렷이 폭로해주고있다.

피피패당에게는 애당초 우리와 정진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박근혜의 악담패설이 그에 대한 필증이다. 더우기 피피집권자는 그 무슨 《연화》와 《개방》에 대해 떠들어떨으로써 저들이 운운하는 《대화》라는것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훼손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집권자가 입에서 구방이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독설을 내뱉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봉기》를 떠들고있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상권과의 결탁강화로 체제대결경망상을 한사코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역시 미국의 철저한 노복, 더러운 앞잡이의 기질은 갈데 없다. 남강도 미제의 최후명망을 앞당기기 위해 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를 의세의 한강 식민지주구마귀가 갈라 어찌보려는것이야말로 가슴속이 그지없다. 피피패당은 본진도 못 찾은 그따위 주제를 혼신질을 작각해 왔다. 모든 당풍은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초는 보복일기만 더해줄뿐이다. 지금 북남관계의 전도가 더욱 암담해지고있는것은 피피패당이 미국에 적극 추종하며 체제대결행동에 미쳐날뛰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피피당이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를 갈라치기 대결하려드는데 이미 경고한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다.

박근혜가 집권한지 2년이 되어오지만 아직까지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어떤데 다시금 명백해졌다. 그의 강경대결은 뜻된 일기야말로 북남관계의 압조고 불행의 환곡이다.

박근혜는 북남대결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망발이 불러올 불어줄수 없는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일조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일본이 《독도명유권》주장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당면하게는 독도수역의 풍부한 자원을 장악하여 경제적리권을 독점하며 나아가서는 독도의 영토야망, 제침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 군사적교두보로 마련하려는데 있다.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골랐고오래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여 또다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꿈꾸고있다.

식민지시대의 범죄적력사에 대한 의곡과 집요한 파피청산거부 등에 덧쌓인 이파림치한 《독도명유권》주장도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로부터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민족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인민족의 시야와 야마도민족의 《수혈검무,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으며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도른자들은 일본반동들이 파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총정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똑바로 알고 파피치한 《독도명유권》주장과 《대제시마(독도)의 날》을 당장 철폐하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독도명유권》주장의 부당성과 군국주의적경도팽창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회과학부문토론회가 18일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사회과학, 교육, 민족유산보호,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영토이라는 데 대하여 이미 밝혀진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자료들로 론증하고 역사적으로 강행되어온 일본의 영토강탈책동을 폭로단죄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섬입니다. 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 섬이었다는것은 구체적인 역사자료가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소장 후보인사 교수 박사 조희승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섬》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 의하여 개척되었으며 그 명유권이 포기된적이 없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라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 당시 울릉도에는 우산국이라는 소국이 있었다.

독도의 옛 명칭이 우산도라는

것을 념두에 둘 때 우산국은 울릉도뿐아니라 독도까지도 자기의 통치영역으로 하고있었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고려사》에는 우산도와 울릉도(울릉도)가 두개의 섬으로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보인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도 그 섬들이 강릉도 울진현에 속하고있다고 밝혀져있다.

《울릉도검찰소》란 보더라고 1882년 최초 리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을 때 옛날 석장을 하던 터의 흔적이 자루에는 퍼였는데 그것이 고대조선사람들의 주요무덤형식인 고인돌만무덤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수 있다.

울릉도가 고대시기(혹은 고이전시기)에 발견개척되었다는 사실은 독도의 발견, 개척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으며 폭지에서 울릉도까지 항행하여 섬을 발견할수 있는 상태이면 독도의 발견은 타당한것이다.

독도는 주인도이지만 우리 나라 독도에 대한 명유권을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었다.

울릉도를 기본명역으로 하면서 독도까지 함께 지배한 우산국은 6세기 초엽 신라에 귀속되었으며 그후 조락하여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울릉도, 독도는 의연히 강릉도의 울진현에 소속된 조선의 원도(원도)의 영토였다.

봉건왕조는 당시의 군대 국제법의 요구를 맞게 독도의 명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일제 가 《시마네호시》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전에 영토수축을 하고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자료들은 독도를 뭇 처음에 발견하고 영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우리 나라의 독도명유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부학부장 박사 교수 리광희는 《역사적으로 강행된 일본의 울릉도, 독도강탈행위》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일본의 영토강탈책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까밝혀냈다.

일본의 독도침략책동은 14세기 후반기이후 왜구의 울릉도침

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강점시기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1379년 울릉도에 침입하여 15일간이나 머무르면서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약탈한 왜구는 1417년 또다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에 기여들었다.

임진왜란에도 울릉도에 침입하여 섬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17세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기여들어 수많은 산파와 산산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일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울릉도, 독도명유권을 황국시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강탈을 위한 새로운 모략도 꾸미었다.

《명치유신》적후인 1869년 12월 우무성의 고위관료들을 조선에 보내어 울릉도,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경위를 알아내도록 하였으며 1882년 입으로 인공통후 하나사부를 전권대표로 파견하면서 조선봉건왕조로부터 울릉도를 양도받음에 대한 비밀지령을 주었다.

이것은 일본이 울릉도, 독도

에 대한 영토야욕을 포기하지 않고있었음뿐아니라 새로운 정세와 환경에 맞서 영토를 강탈하기 위해 책동하고있었음을 보여준다.

《시마네호시》 제40호의 조작과정과 그 비법성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철주사범대학 부학부장 박사 부교수 한영찬은 일본의 《독도명유권》이란 《시마네호시》로부터 출발하여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파피치한 역사외곡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일본은 독도수역에서 비법적인 물개잡이를 하던 나가이이라는 어부의 《일대청원》을 독도강탈의 꿈을 이룰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원래 일본내무성이 각각시키려 한 나가이의 이 일대청원서는 1904년 9월 29일 《리양요정 명도청원 및 일대청원회의》를 열고 내무, 외무, 농사부 3성대신에게 제출되었으며 내각은 이에 기초하여 1905년 1월 28일 나가이의 청가서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고 각의 결정하였다.

이 강도적인 각의결정에 따라 1905년 2월 22일부터 된 《시

마네호시》 제40호라는것이 조작되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민정국인 조선정부는 물론 그 어느 나라라도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고지체도 한강 지방관인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일신보》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다.

《시마네호시》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은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영토로 간주해도 잘 알수 있다.

한해라선,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착취한 지역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것과 일본의 영토를 4개의 기본분과 앞으로 연합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여러각은 섬들》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법부》의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착취된》 섬으로 간주되어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준비사업으로 《연합국의

구일분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호에서 일본이 조선에 반환하여야 할 영토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로 규정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황명철은 《일본의 <독도명유권> 주장은 군국주의적경도팽창야망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일본은 페망청후부터 세계에 들이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진실을 굳이 외면하고 비법적이고 침략적인 독도강탈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일본은 이른바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문제를 차츰차츰 쌓고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 공동판리, 무력에 의한 탈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론하고있다.

독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영토분쟁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독도명유권은 의문의 여지조차 없으며 여기에 어떤 미해명문제만 리륙만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이 독도문제를 다시금 들고 나오면서 《대제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진저속심

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일본이 《독도명유권》주장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당면하게는 독도수역의 풍부한 자원을 장악하여 경제적리권을 독점하며 나아가서는 독도의 영토야망, 제침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 군사적교두보를 마련하려는데 있다.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골랐고오래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여 또다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꿈꾸고있다.

식민지시대의 범죄적력사에 대한 의곡과 집요한 파피청산거부 등에 덧쌓인 이파림치한 《독도명유권》주장도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로부터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민족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인민족의 시야와 야마도민족의 《수혈검무,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으며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도른자들은 일본반동들이 파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총정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똑바로 알고 파피치한 《독도명유권》주장과 《대제시마(독도)의 날》을 당장 철폐하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윤일병타살사건과 홍경사건 등으로 온 날조선선명을 들었다놓고 저들의 부패상을 날같이 드러낸 피피군이 여전히 부정부패부패로서의 악명을 떨치고있다. 그에 대해서 소문난 협잡꾼, 범죄자들도 입을 딱 벌릴 정도이다. 피피를 불고 일어나는 성병되는 물론 군수품납입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부패행위와 자살사건들이 바로 그렇다.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지금 피피군부는 군수품납입과정의 부정부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 1월 22일 피피회원사업청은 군부에 납입할 《K-11》복합소총이 온풍 결합투성이인 것으로 하여 공급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피군부가 그처럼 자랑해온 이 무기의 납입이 몇달전에 중지된 사실을 저들이 와서 발표했듯이 지금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알고보니 지난해에 이 무기의 결함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피피군부는 지금껏 사실을 숨겨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기된 문제를 여론화하지 않고 끌어들면서 계속 논쟁을 하려는 기업주조와 그와 결탁한자들의 리해관계가 깔려있다. 이것이 드러나면 피피군부와 방위사업청이 무기거래과정에 회를 받아먹고 돈을 매달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편화된 부정부패행위를 실증해주듯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최근 피피당국은 군수품납입과정에 로발화되는 부정부패현상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수사단이라는것을 조직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드러나고있다. 합동수사단이 얼마전 피피특근수전투사령부에 공급된 다기능방탄복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탄알을 전혀 막지 못하는 불량품이라는것이 확증된것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 사건에는 군수사업과 군부고위인물들의 밀착관계가 반영되어있다고 한다. 사실 이 방탄복은 지난해에 피피감사원이 탄알에 완전판통되는 불량품으로 평가하였던 군부 고위에서 사살한것이다. 피피군부는 방탄복을 공급하는 부대들의 평가보고서에서 적함하지 않다는 표현은 전부 빼고 합격품이라고 조아박음으로써 그것이 대량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은 뒤집어놓으려 한다. 피피군부의 군수품납입과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행위를 끌어들여 부정부패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편화된 부정부패행위를 실증해주듯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피피군부를 《세금먹는 하마》로 야유, 비난하고있겠는가.

오합지졸의 무리, 식민지교용군으로서의 피피군의 한심한 실태는 빈번히 여기저기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날로 심화되는 피피군내부의 폭행, 자살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2월 5일 피피북군의 어느 한 부대에서 한 일병에 대한 가혹한 구타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어느 한 부대의 중위가 사병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구타한것으로 하여 체포되었다. 장교들과 선임병들의 학대에 못이겨 사병들이 탈영하는 사건들도 지어 일어나고있다. 탈영하지 못하는 사병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어느 한 부대의 사병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빼고 자살하고 그 다음날에는 어느 한 해안소조가에서 실종되었던 한 사병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1월 24일에는 연평도에서 북침정연습에 내몰리면서 한 사병이 죽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것은 피피군에서 매일, 매 시각 일어나는 자살사건들의 일면이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식민지교용군이 되어 동족을 반역하고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색이빠진 집단에서 말리물수야 있겠는가.

피피군부의 이런 한심한 실태는 너무도 당연하다. 더우기 외세의 식민지적피해와 반역통치배들의 악정미로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을 빼앗는것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이라고 된다.

북로선반과 같이 《보안법》은 우리 공

인간의 향심과 권리를 《보안법》으로 짓밟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 중 인민들의 정의로 투쟁을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남조선독재당국의 파피적악행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황로해지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모조리 《보안법》 위반자로 몰려 철창속으로 끌려가고 파피적악행의 형틀에 묶이여 고초를 겪고있다. 이런 속에 보수계당은 《리적단체》를 규정된 단체들을 강제해산하는 내용으로 《보안법》을 개악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법》을 위반한 형틀에 묶이여 고초를 겪고있다. 이런 악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단체는 《보안법》은 1948년에 공포되어 지금 《2013》까지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류태없는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수십년간에 걸친 《보안법》의 존재역사는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권력의 역사, 부남사건의 불리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을 커다란 장애물인 양 만들어낸 역사이다.

리승만독재《정권》과 《유신》독재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피통치배들이 마구 휘두른 《보안법》의 칼날에 맞아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통일애국인사들과 각계중 인민들이 무참히 쓰러졌던가, 그 희생정신에 의해 창창하게 펼쳐져 온 조국통일운동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것이 안타깝다.

사람이 사회적진보를 위해 활동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우기 외세의 식민지적피해와 반역통치배들의 악정미로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을 빼앗는것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이라고 된다.

북로선반과 같이 《보안법》은 우리 공

회국의 《만국가단제》로, 사회적진보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이며 정의로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애당초 부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보안법》에 조아박힌 《천양고무죄》, 《담임불복죄》, 《회합통신죄》, 《불고지죄》 등 각종 조항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다. 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사회제도를 해탈시키는 비극과 불행, 고통을 빠르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그토록 잔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악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단체는 《보안법》은 1948년에 공포되어 지금 《2013》까지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류태없는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수십년간에 걸친 《보안법》의 존재역사는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권력의 역사, 부남사건의 불리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을 커다란 장애물인 양 만들어낸 역사이다.

리승만독재《정권》과 《유신》독재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피통치배들이 마구 휘두른 《보안법》의 칼날에 맞아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통일애국인사들과 각계중 인민들이 무참히 쓰러졌던가, 그 희생정신에 의해 창창하게 펼쳐져 온 조국통일운동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것이 안타깝다.

사람이 사회적진보를 위해 활동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우기 외세의 식민지적피해와 반역통치배들의 악정미로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을 빼앗는것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이라고 된다.

북로선반과 같이 《보안법》은 우리 공

국악한 독재적인 리명박역도와 《유신》독재의 후예인 현 피피집권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보안법》은 더욱 살기게 뚱고있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남조선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당한 글은 20만 6400여건에 달한다.

남조선인민들은 현 《정권》하에서 《보안법》위반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지난해와 올해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는 리석기대관음모사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이 터져나오는데 속이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이 하위조직에 강제해산되고 《국회》의원에게까지 쇠고랑이 채워졌다. 《보안법》에 소동으로 조국통일범인연합 남측본부와 같이 좌파당국에 의해 《리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도 강제해산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얼마전 피피패당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본 그대로 말한 회담정착연습구포럼 대표 황선과 해외동포대성을 《중독》으로 몰아 가혹한 탄압을 가한것은 남조선에서 《보안법》에 의해 인권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강리차 말살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죽했으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까지 남조선에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것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장기간의 희생적 인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싸움을 여전히 민형당사건, 민형학원사건, 동부배를 탄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안법》의 반인권적악행을 날마다 고발하고있다. 이로 하여 《보안법》은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이들거나 그 말만 들어도 물서리치는 공포의 대명사로 되었다.

가 탄압함으로써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는 사실이다. 남조선피피들이 《보안법》을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지레대로 삼으면서 그에 의거하여 통일애국력들을 《중독》으로 몰아 계속 가혹하게 탄압한다면 북남관계악화는 절대로 피할수 없다. 회색의 반동일파소악법이 우리 민족에게 끼치는 해독적수파는 이후 헤아릴수 없다.

용납 못할 인권말살악법인 《보안법》의 철폐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오늘의 문명시대에 《보안법》과 같은 중세적기원악법이 존재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불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피피집권자들은 《보안법》을 지키고 대신 더욱 가혹히 탄압하고있다.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의 세계화와의 인권불모지로 만들고 그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해가는 파피적악행이 터져서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어찌되지제나 하며 의세와 함께 회색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실로 천행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피피패당은 신성한 인권을 대해 입에 담을 한조각의 체면도 없다.

악명높은 《보안법》의 피비린 범외의 초사는 지레없이 끝장나야 한다. 파피적악법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인민들이 인제가고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누릴수 없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철폐에 대한 대외성유언을 의미하며 독재체제에 계속 광범한다면 은 민족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종당에는 파피적악법과 함께 역사사의 쓰레기대에 처박히 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중 인민들은 자주와 존엄을 위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보안법》철폐투쟁의 불길한 길을 힘써가며 지켜올려야 할것이다.

라 설 하